

새로운 출발-학교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으며



김현기
태양기술개발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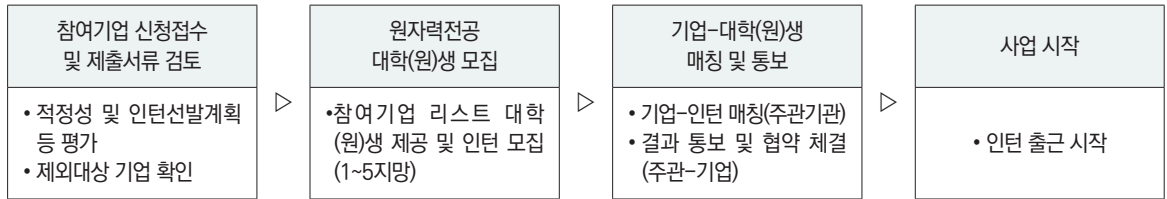
•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사

11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 바랍니다.

먼저 제가 원자력공학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입학과정에 성적에 맞추어 입학하게 됨에 따라 흥미를 갖지 못하고 대학생활을 하던 중 2018년 6월 우연한 계기로 원자력 관련 분야 현직자 교육특강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내용은 원자력 관련 직무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어 강의를 청취한 후 관련 기사 정보 등을 찾아보며 더욱 원자력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나도 원자력과 관련된 공부와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학문을

공부해야 했고 6개월 동안 편입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간절함의 결과 마침내 2019년 상반기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해보니 더욱이 흥미가 생겼습니다. 2년 반 동안 원자력 관련 학문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2021년 3월경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카카오톡 학과 단체 공지방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미래 국내 원자력 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업에 참여코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 전공자 구직난 해소와 대학(원)생의 원자력 산업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하여 4개월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형과 4개월간의 인턴생활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계를 체험하는 체험형이라는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표 1〉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 절차



〈표 2〉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 구조

1차 구분	(인턴기간)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형	■	■	■	■	■	■	■	■	■	■
체험형	■	■	■	■	-	-	-	-	-	-

대학의 학부에서 배운 전공을 가지고 관련 산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난 후, 지원 가능한 다수의 기업에 대해 검색 및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직무, 위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형이었던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주)태양기술개발을 1지망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후 일주일 후 1지망으로 지원했던 (주)태양기술개발과 매칭이 되어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 4월 1일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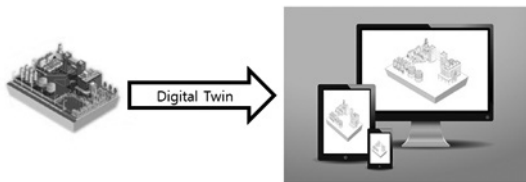
첫 직장생활이라 긴장도 되고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분야에서, 많은 Know-How와 경험이 있으신 원자력 산업계의 선배님들께서 직무교육과 원자력 산업계에서 다년간 경험했던 설계기술을 전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4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회사의 배려와 결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새로

운 일터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주)태양기술개발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988년 설립하여 34년간 국내외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수·화력 발전소 석유화학 분야의 플랜트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신사업부(디지털융합팀)에서 재직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건설·발전운영 등의 전문 설계기술, 3D 모델링 등을 바탕으로 플랜트 디지털트윈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이란 물리적자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디지털 표현이며 성능을 이해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정보이며 센서 및 측량을 통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거의 실시간 상태, 작업 또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자산을 시각화하고 상태를 확인·분석 수행하고 통찰력을 생성하여 자산의 성과를 예측·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이란 기술은 산업계 여러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보유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인공지능을 포함한 안전관리, 실감형 교육 등의



[그림1] 디지털트윈이란

컨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만들어 원자력 산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원전 해체 기술에도 접목하여 해체하는 과정의 시뮬레이션 및 안정성 실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의 저는 시작 단계이고 미비하지만 많은 공부, 교육수강, 원자력 산업계 선배님들의 풍부한 전문기술과 경험 등을 전수받아 원자력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훗날의 제가 다른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을 때 올바른 원자력 산업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 품성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난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취업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학부생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커리큘럼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업 리스트를 제공해 주셔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인턴십 지원사업 온라

인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무일지 기록 설문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 또한 있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유익한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동기,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횟수의 온라인 설명회나 학교를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원자력공학과 학우들이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는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자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 저로서 새로운 부분도 많고 궁금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궁금증 등과 정보 공유는 직무를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인 직무체험으로 취업활로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과 같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원자력산업계에 진출하는데 있어 원자력산업협회의 폭넓은 사업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저에게 원자력산업계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원자력산업협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KMIF**